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박 선 영**

Park, Seon Young

도 현 심***

Doh, Hyun Sim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cohesion, conflicts, family sociability, and democratic family style) and self-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485 2nd-grade high school students (256 boys and 229 girls). Data were collected using three questionnaires on the loneliness,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Family functioning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neliness both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Adolescents experienced less loneliness when family cohesion and sociability were higher, conflicts were lower, the family style was more democratic, and self-esteem was higher. Family functioning was also related to self-esteem. The more functional the family, the higher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Self-esteem played a partly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loneliness only for boys. This emphasizes the influential role of self-esteem on loneliness.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동안 서로 다른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타인들과의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심리적·신체적 발달과정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고 실제 성취되는 사회적 관계

의 양상이 개인과 발달단계마다 다를지라도, 친밀감(Sullivan, 1953)이나 소속감과 같은 정서적 욕구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인간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정서적 교류를 가지며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만족을

* 본 논문은 1997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느끼고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외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서의 단절감은 끝없는 자기비하와 상실감,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급기야는 사회에서 심각한 부적응을 야기하기 쉽다(Rubenstein & Shaver, 1982).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하나인 외로움은 소외나 아노미와 같은 사회적 구조와 다르며(Solano, 1980; Solano, Batten, & Parish, 1982에서 재인용), 내향성이나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구조와도 구분되는 정서이다(Russell, Peplau, & Cutrona, 1980). 이것은 문화와 인종, 성(性)과 계층, 그리고 연령에 제한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개인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인간의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에 깊숙이 침잠되는 복잡한 정서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깊은 성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며 약 15%의 사람들은 항상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Rubenstein & Shaver, 1982).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외로움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고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서 이에 따른 다양한 부정적 정서 및 문제행동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미국 청소년의 20~50%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외로움이 더 이상 소수집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Brennan, 1982).

외로움은 대개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 및 상황의 변화와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변화가 있을 때 생겨난다(Peplau & Perlman, 1982). 청소년기는 이 시기의 발달특성상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서의 수용과 정서적 유대 외에 친밀감이라는 본연의 욕구가 부각되고(Sullivan, 1953), 새롭고 다양한 대인관계에 대한 강력한 친화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관계망이 부재하면서 외로움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여진다. 친구관계가 중요한 이 시기에 친구로부터의 거부는 고립감의 수반과 함께 필연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직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또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면서 자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책임감은 사회가 갖는 과도한 기대와 함께 좌절과 혼자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Brennan, 1982).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외에도 청소년이 위치한 사회적 지위와 사회구조로 인해 외로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변인’이라는 청소년 지칭 용어는 청소년의 모호한 사회적 위치와 그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을 잘 나타내준다. 현대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부적응과 실패의 경험은 자아존중감의 손상과 자기비하를 가져오며, 이러한 심리적 좌절감은 결국 사회로부터 유리(遊離)되고 정서적으로도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쉽다.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성인의 양가적 태도와 부적절한 역할모델, 과도한 사회적 기대 등도 청소년의 내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Brennan, 1982).

외로움은 깊은 고립의 상태로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서(Fromm-Reichmann, 1959) 어린 시절 해소되지 못한 친밀감의 욕구로 인한 정서라는 견해(Sullivan, 1953; Weiss, 1973)가 대두된 이후로 이에 대한 개념화는 접근 방향에 부합하여 종종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인의 사회적 결핍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다(Peplau & Perlman, 1982): 첫째, 외로움은 다른 부정적인 정서상태와 마찬가지로 대개 고통스럽고 즐

겁지 못한 경험이다; 둘째,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과는 다른 주관적인 경험이다. 즉, 외로움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사회 관계망 여부와 상관없이 느끼게 되는 지극히 개인 내적인 감정으로 넓은 대인관계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사적인 정서이다. 또 고독과 외로움이 경험적으로 관련 있는 정서일 수 있지만 고독은 혼자가 되려는 개인의 의도적인 선택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휴식을 부여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Marcoen & Goossens, 1990; Margalit, 1994에서 재인용); 셋째,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신의 사회 관계망, 즉 대인 관계의 결핍에 대한 개인적 지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Sullivan(1953), Weiss(1973), 그리고 Peplau와 Perlman(1982) 등이 내린 정의를 참고로 ‘개인의 성격 또는 상황적 요인들로 인한 타인과의 적절치 못한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감과 소속감의 결여에 대해 개인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인 정서상태로 이루어진 심리구조’로 정의한다.

외로움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들은 외로움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개인의 인성특성과 정서, 행동 등에 관심을 갖고 주로 개인적 특성들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접근은 외로움을 단순히 개인적인 맥락 안에서만 보는 시각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점차 연구자들은 외로움이 개인의 정서적 적응 수준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인성구조의 기능으로서(Goswick & Jones, 1981; Hojat, 1982b), 대인적·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로움을 개인의 정서장애로 보고 주로 개인적인 발달맥락 안에서만 접근하였지만, 최근 들어 외로움을 가족기능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가족과정의 근본적인 산물로 보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가족역동성(Large, 1989)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외로움이 개인적인 심리적 구조의 기능일지라도 결국 사회적 대인관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내적인 심리과정만이 아니라 그가 타인들과 맺는 여러 관계,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Goldenberg & Goldenberg, 1980)은 한 개체의 심리적 과정을 조형하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기본적 발달과 관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가족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체계 이론과 함께 이미 1960년대에 대두되었다가 1980년대에 와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가족맥락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족과정 및 상호작용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과 더불어 전생애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 환경으로 대두되었다(Barber, 1992; Gecas & Seff, 1990).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단일한 관계차원에서 벗어나 가족 내에서 가족원간에 형성되는 모든 관계와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었다.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발달시기에서 한 개체의 역기능적 행동과 정서는 단순히 그 개체 내에서의 병리 때문이라기 보다는,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 즉 부적절한 인간관계 혹은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기인한다는 것이 체계 이론에서 보는 시각이다. 다시 말하면 병리의 소재지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서의 개인이며(Minuchin, Rosman, & Baker, 1978),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맥락은 가족을 가리킨다.

가족기능은 가족을 하나의 역동적 개방체계로

보고 가정 밖의 환경 및 가족 하위체계들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가족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가족치료 분야에서 나온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기능에 대한 접근은 주로 체계론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가족내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조해왔다. 가족 전체가 하나의 조직적 단위로서 기능하는 가족의 역동적 과정(family process)이 이루어지고 가족원의 발달을 조형하는 가족체계의 기능은 가족단위가 갖는 기본적 역할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족원의 행동 및 가족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심리적 구조로 이해된다. 가족의 기능성 여부가 모든 가족원의 정서와 행동에 투영된다고 볼 때,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밀접한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외로움은 개체의 특별한 인성특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로움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개인적 맥락에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구조의 역기능적 산물이라는 데 동의해 왔다. 불만족스런 사회적 관계와 그 상황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 및 낮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인성특성들은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며, 또 외로움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외로움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Weiss, 1982). 이처럼 외로움에 특별히 취약한 개인의 다양한 기질적 특성은 비슷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신뢰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성특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원만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과 신념의 한 부분이다(Weiss, 1982).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

는 자기평가는 외로움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은 외로움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중요한 개인의 특성을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예: Goswick & Jones, 1981; Hojat, 1982a, 1982b; Loucks, 1980; Russell et al., 1980).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타인들과 애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들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외롭다는 감정과 함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갖기 쉽다.

외로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명백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확실히 어느 것인지는 모호하다. 즉,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은 양방향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의 원인인 동시에 외로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인성특성이기도 하다(Inderbitzen-Pisaruk, Clark, & Solano, 1992; Peplau, Miceli, & Morasch, 1982).

외로움의 생성물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침체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에서 생겨난다. 사회적 관계의 결핍과 그에 대한 지각에서 생성되는 고립감, 또는 타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소외되었다는 느낌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하기 쉽다. 또 개인이 외로움을 상황이나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으로 인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격적 결함과 능력부족으로 인지할 경우 자아존중감은 더 악화된다(Weiss, 1982).

외로움의 선행요인으로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회의를 갖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진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함으로써 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Pelplau, Miceli, & Morasch, 1982).

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적응을 대체로 내적 원인으로 귀인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을 형성·유지하는 데 주도적이지 못하며 자기비하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고 반사회적 행동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예: 심희옥, 1997; Kahle, Kullka, & Klingel, 1980)에서 자아존중감과 적응문제 중의 하나인 외로움간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어려움과 이로 인한 자기배적 성향은 소외와 고립감을 가져오고, 결국 개인을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상태에 직면하게 만든다.

이처럼 개인의 사회적 유능성을 손상시키는 자기배적 인지와 행동으로 연결되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내향성이나 신경증적 성향, 사회적 불안, 우울감과 같은 다른 인성요인들과 같이 외로움을 잘 예측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연구들에서 나타난다(예: Hojat, 1982b; Pelplau & Perlman, 1982). 즉, 외로움과의 인과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자아존중감은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인성특성으로 보여진다.

가족기능은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외로움의 정서가 역기능적인 가족기능의 산물임을 생각할 때 개인이 갖게 되는 자아존중감도 그가 소속된 가족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인성발달에 대한 가족의 중요성은 이미 Freud의 정신분석론적 입장뿐만 아니라, Sullivan과 Erikson 등이 중심이 되는 신프로이드 학파의 인성발달에 대한 이론에서도 강조되었다. 자아개념이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그들의 평가와 관계

의 질을 기초로 형성된다고 볼 때, 청소년기에 친구관계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관계와 그들이 경험하는 가족기능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맥락인 가족 내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정으로는 가족관계의 질과 상호작용의 유형(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Gecas & Schwalbe, 1986; Robertson & Simons, 1989), 가족갈등과 부모의 통제 및 양육방식(김경연, 1993; 손화희, 윤종희, 1990; Coopersmith, 1967; Robertson & Simons, 1989), 가족옹집성 및 갈등과 지지(Cooper, Holman, & Braithwaite, 1983), 부모의 지지와 수용 및 온정성과 반응성(Gecas & Schwalbe, 1986; Graybill, 1978; Growe, 1980; Kawash, Kerr, & Clewes, 1985),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과 수용(Watkins & Astilla, 198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기능의 중심 차원인 응집성과 적응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Farrell과 Barnes (1993)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 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심리적·정서적 기능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로움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간의 유의한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족기능은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가족

기능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매개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이 외로움과 모두 유의한 관계이어야 하고, 외로움에 대한 가족기능의 상대적 영향력, 즉 자아존중감을 통제하였을 때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거나 유의도가 감소하여야 한다(Baron & Kenny, 1986).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로움의 세 변인들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없음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차지하는 역할을 탐색해 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로움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며, 또한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지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 S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485명의 남녀학생(남: 256명, 여: 229명)들로서 본 연구의 내용상 부모와 동거하는 청소년들만이 선정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외로움에 관한 국외 연구들(예: Brage et al., 1993)에서 외로움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된 청소년의 외로움, 가족기능(옹집성, 갈등, 가족사회성, 민주적 가족유형),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들로 구성된다. 각 질문지의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로서, 각 특성이 높을 수록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1) 외로움 척도

본 연구에서는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이 만든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을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정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청소년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총 문항 수는 20문항으로서 10문항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를, 나머지 10문항은 불만족 여부를 질문한다.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온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척도 개정 당시의 신뢰도 계수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20문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alpha=.90$ 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1〉 참고).

2) 가족기능 척도

가족기능의 측정은 Bloom(1985)이 고안한 자기보고식 가족기능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의 가족기능 측정도구들인 FES(Family Environment Scale), FCQS (Family-Concept Q Sort),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그리고 FAM(Family Assessment Measure)을 통합·발전시켜 만든 새로운 가족기능 측정도구이다. 본래 이 척도는 관계차원(relationship dimensions), 체계유지차원(system maintenance dimensions), 그리고 가치차원 또는 개인적 성장차원(value dimensions or personal growth dimensions)의 세 차원으로 구성

된다. 관계차원은 응집성, 표현성, 갈등, 가족사회성, 가족이상화(family idealization), 가족원의 이탈(disengagement)의 여섯 개의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체계유지차원은 조직화, 통제의 외적 소재, 민주적 가족유형, 방임주의적 가족유형, 권위주의적 가족유형, 가족원의 밀착(enmeshment)의 여섯 개의 하위요인들로, 그리고 가치차원은 지적-문화적 지향성, 활동적-여가적 지향성, 종교적 강조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예비조사결과 최종적으로 작성된 본조사용 척도는 응집성, 갈등, 가족사회성, 그리고 민주적 가족유형의 네 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질문지이었다. 기존 연구의 요인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0문항들에 대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한 개의 문항이 가족사회성요인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존 연구의 요인들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척도에서는 가족사회성에 포함되었던 한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응집성요인에 포함되었다. 다음,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응집성요인에서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한 문항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집성(5 문항), 갈등(5 문항), 가족사회성(3 문항), 그리고 민주적 가족유형(5 문항)의 네 요인으로 구분되는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응집성이 .80, 갈등이 .76, 가족사회성이 .72, 그리고 민주적 가족유형이 .78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79이었다(〈표 1〉 참고).

3) 자아존중감 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

구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 (RSES)을 번안해 사용한 전병재(1974)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용으로서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외로움과 관련된 자아존중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일반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도 산출에서 신뢰도가 매우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아홉 문항을 사용하였다. Rosenberg가 척도를 만들 당시의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홉 문항들의 Cronbach's α 는 .82이었다(〈표 1〉 참고).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 척도 | 문항수 | 신뢰도 |
|----------|-----|-----|
| 외로움 | 20 | .90 |
| 가족기능 | 18 | .79 |
| 응집성 | 5 | .80 |
| 갈등 | 5 | .76 |
| 가족사회성 | 3 | .72 |
| 민주적 가족유형 | 5 | .78 |
| 자아존중감 | 9 | .82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척도의 구성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01명의 남녀학생들(남학생:50명, 여학생:5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7년 책임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에게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600부의 질문지 가운데 580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

율:97%), 이 중 부모의 사별, 이혼 및 별거로 인해 양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가정의 학생들 경우(34부)와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61부)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485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가족기능과 외

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분석에 앞서 외로움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족기능과 외로움은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전체 가족기능: $t=-4.17$, $p<.001$; 외로움: $t=2.32$, $p<.05$).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및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M | SD |
|-------------|---------|---------|---------|---------|---------|---------|---------|------|-----|
| 1. 웅집성 | — | -.40*** | .28*** | .50*** | .78*** | .21*** | -.29*** | 3.14 | .49 |
| 2. 갈등 | -.45*** | — | -.12 | -.35** | -.20** | -.24*** | .21*** | 2.24 | .53 |
| 3. 가족사회성 | .40*** | -.22*** | — | .16* | .55*** | .11 | -.30*** | 2.95 | .60 |
| 4. 민주적 가족유형 | .53*** | -.37*** | .25*** | — | .76*** | .20** | -.34*** | 2.72 | .53 |
| 5. 전체 가족기능 | .80*** | -.29*** | .61*** | .79*** | — | .22*** | -.38*** | 2.92 | .32 |
| 6. 자아존중감 | .27*** | -.08 | .25*** | .20*** | .28*** | — | -.37*** | 2.78 | .47 |
| 7. 외로움 | -.25*** | .13* | -.30*** | -.20*** | -.28*** | -.55*** | — | 2.04 | .35 |
| M | 2.88 | 2.13 | 2.90 | 2.48 | 2.79 | 2.71 | 2.12 | | |
| SD | .53 | .53 | .59 | .57 | .36 | .45 | .41 | | |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는 여학생, 아래는 남학생의 수치임

* $p<.05$ ** $p<.01$ *** $p<.001$

1.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및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2) 참고).

가족기능의 하위요인들 및 각 하위요인들을 통합한 전체 가족기능은 남녀청소년 모두에 있어서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남: $r=-.28$, $p<.001$; 여: $r=-.38$, $p<.001$). 가족원들간에 웅집성이 낮고 갈등이 많으며 사회성이 적고 권위주의적인 가족, 즉 역기능적인 가족 출신의 청소년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자아존중감도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r=-.55$, $p<.001$; 여: $r=-.37$, $p<.001$).

또한,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남:r=.28, $p<.001$; 여:r=.22, $p<.001$). 남학생의 경우 가족기능에서 갈등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하위요인들 및 전체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가족사회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하위요인들 및 전체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능적인 가족, 즉 가족 내에 응집성이 높고 갈등이 적으며 사회성이 높고 민주적인 가족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가족의 청소년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

본 연구는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로움의 세 변인들간의 유의한 관계에 근거해서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가정하였다. (표 2)에서도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고).

〈표 3〉 외로움에 대한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남:256명; 여:229명)

| 독립변인 | B | β | R^2 | F |
|----------|------------|------------------|-----------|---------------------|
| 응집성 | -.09(-.16) | -.11** (-.22***) | .32(.19) | 58.54*** (25.77***) |
| 자아존중감 | -.47(-.25) | -.52***(-.33***) | | |
| 갈등 | -. (.11) | -. (.16**) | -. (.17) | -. (22.48***) |
| 자아존중감 | -. (-.26) | -. (-.35***) | | |
| 가족사회성 | -.12(-) | -.17** (-) | .33(-) | 63.13***(-) |
| 자아존중감 | -.46(-) | -.51***(- -) | | |
| 민주적 가족유형 | -. (-.18) | -. (-.28***) | .30(.23) | 111.38***(- -) |
| 자아존중감 | -.50(-.24) | -.55***(-.32***) | | |
| 전체 가족기능 | -.18(-.38) | -.13* (-.31***) | .32(.23) | 59.85(33.52***) |
| 자아존중감 | -.47(-.23) | -.52***(-.31***) | | |

주: 팔호안은 여학생의 수치임

* $p<.05$ ** $p<.01$ *** $p<.001$

그러나 가족기능의 하위요인들 중 남학생의 경우 갈등요인과 여학생의 경우 가족사회성은 자아존중감과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아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응집성과 가족사회성을 자아존중감과 같이 각각 독립변

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두 자아존중감은 이들 요인보다 외로움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전에 유의적이었던 외로움과의 관계는 그 유의도가 감소하였다. 민주적 가족유형과 자아존중감이 같이 투입되었을 때는 민주적 가족유형

은 외로움과 더 이상 아무런 유의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전체 가족기능도 외로움과의 유의적이었던 상관관계가 감소하여 외로움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갖는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을 통제하였을 때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유의한 관계, 즉 가족기능이 외로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자아존중감을 통제하기 전의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단순상관관계에 비해 낮아지거나 없어졌으므로 자아존중감이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기능은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과 달리 각 하위요인 및 전체 가족기능 모두가 자아존중감과 비슷한 상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아무런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이 느끼는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기능은 남녀청소년의 외로움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응집성, 갈등, 가족사회성, 그리고 민주적 가족유형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외로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가족원간에 결속력 및 정서적 유대감이 높고, 사회성이 높으며 갈등이 적고 민주적인 가족의 청소년일수록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다.

응집성과 외로움간의 유의한 관계는 응집성을 포함한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들(예: 안양희, 1988; Barber, 1992; Farrell & Barens, 1993)과 일치한다. 외로움이 심리적 유대감의 결핍과 정서적 애착대상의 부재 등으로 생겨나는 감정임을 고려할 때, 심리·정서적 유대가 높은 응집력 있는 가족의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기가 쉽다. 마찬가지로, 가족간의 갈등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유의한 관계 역시 조화롭지 못한 가족의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예: 이문행, 1994; 주소영, 1995; 전민희, 1993; Gauze, Bukowski, Aquan-Assee, & Sippola, 1996)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사회성은 가족원이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갖게 되는 만족감으로 개개인보다는 전체 가족을 단위로 평가된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서 부모가 사교적일 때 대체로 그 가족은 타인과 높은 수준의 접촉을 경험하기가 쉽다. 나아가서 사교적인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 및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Filsinger & Lamke, 1983), 자녀는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결국, 가족의 사회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관계의 결핍, 즉 사회성의 부족으로 생겨나는 외로움을 덜 경험하게 된다. 민주적 가족유형도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고, 이것은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혹은 가족원의 적응성과 청소년의 정신적·행동적 문제들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들(예: 김주연, 1997; 민하영, 1992; Rollins & Thomas, 1975; 전귀연, 최보가, 1995에서 재인용)을 지지한다.

가족기능의 하위요인들을 합하여 살펴본 전체 가족기능 역시 외로움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점에 근거할 때, 가족이 기능적일수록 청소년이

외로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고 가족이 역기능적 일수록 외로움의 경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과 여러 정신병리적 문제 및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힌 많은 연구 결과들(예: Farrell & Barnes, 1993; Garbarino, Sebes, & Schellenbach, 1984; Minuchin, 1974; Smart, Chibucos, & Didier, 1990)과 일치하는 것으로, 외로움도 가족과정의 산물로서 가족내 어떤 결핍이나 체계의 붕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 개인이 갖는 외로움은 가족과 분리시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Large(1989)의 견해를 지지한다.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밀접한 관계는 기존 연구결과들(예: Goswick & Jones, 1981; Inderbitzen-Pisaruk, Clark, & Solano, 1992)과 일치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자신감의 결여와 함께 통제의 의적소재 및 자기비하를 가져오고 결국 자기폐쇄적 성격(Russell et al., 1978)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부정적 시각에서 보며, 타인들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데 소극적이고 불안해 하기가 쉽기 때문에(Horowitz, 1982),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기술의 결핍을 반영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궁극적으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응집성과 민주적 가족유형은 남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

인 반면, 갈등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가족사회성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집성 있는 가족의 개체일수록 높은 자아존중감(Cooper et al., 1983; Farrell & Barnes, 1993)이 형성되고, 가족갈등 및 부모-자녀관계의 갈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등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예: Cooper et al., 1983; Coopersmith, 1967; Robertson & Simons, 1989)과 일치한다.

가족사회성은 특히 남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가졌으나 여학생의 자아존중감과는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체로 가족사회성이 높은 청소년은 사교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할 때, 이러한 성차는 청소년기 남녀학생의 우정 또는 친구관계의 양상을 보면, 남학생이 다수(多數)로 이루어진 또래집단의 소속 여부를 중시하는 반면, 여학생은 소수의 몇몇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한다(Dickens & Perlman, 1981; Inderbitzen-Pisaruk et al., 1992에서 재인용). 결국 남학생은 넓은 대인관계와 다수의 친구들과의 교제에서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경험하므로, 이러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교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자신의 대인관계에 불만족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매우 친밀한 소수의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여학생은 이런 가까운 친구의 유무(有無)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협소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해도 자신과 심리적 유대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존재한다면 대체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만족해하며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할 수가 있다.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으로 매개적인 역할을 하였다. 웅집성과 가족사회성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었으며, 민주적 가족 유형은 완전히 매개되어 외로움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즉, 외로움에 대하여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이 갖는 상대적 영향력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커서 가족기능은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아무런 매개효과를 갖지 않았으며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이 외로움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비슷하였다. 이처럼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서 나타난 성차는 궁극적으로 청소년기에 가족의 상대적 중요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성차는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및 사회화 과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대체로 부모들은 남아의 경우 남자로서 갖는 자립심과 사회성을 중요시하면서 독립적으로 키우는 반면, 여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회화 과정에서도 가정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남자들은 가정 밖의 사회생활과 관계가 중시되지만 여자의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 가족 내의 삶이 중요시된다.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 지표인 자아정체감의 발달에서도 남자들이 형성하는 정체감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기대를 받으며 가정 밖의 사회적 생활에서 성취되는 정체감이 중시되지만, 여자의 경우는 우호적인 대인관계와 친밀감이 중시되고 가족 내의 역할과 생활이 정체감 형성에 지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Giligan, 1982; Marcia, 1980). 부모의 성구분적인 양육행동과 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이질적인 경험 등은 남녀청소년들이 가족에

대해 갖게 되는 지각의 차이를 유발시키며, 이로 인해 가족원간의 유대 및 분리의 정도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청소년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가족 내에서의 생활과 부모 및 가족원들간의 유대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좀더 쉽게 분리되고 자신을 독립된 한 개체로서 인식하는 개체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며, 따라서 가족의 기능성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개체화를 이룬 청소년은 자아의 적응체계를 확립하고(Blos, 1979), 결국 이것은 견고한 정체성과 함께 높은 자아존중감의 성취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족기능보다 외로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기능과 외로움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탐색적 목적으로 살펴본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이 남학생의 경우에서 발견되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외로움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가족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나마 높게 나타난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청소년의 외로움에 있어서 가족기능 외에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의 한 지역만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은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연령시기로서 모든 청소년기를 충칭하여 일반화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함께 종단연구도 이루어져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며, 하류층 청소년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견해(Brennan & Auslander, 1979;

Brennan, 1982에서 재인용)를 볼 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계층간 차이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측정에만 의존하여 평가하였으나, 가족기능이 가족내 모든 가족원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부모-자녀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생각할 때, 부모들이 측정하는 가족기능 평가도 필요하다. 또 외로움에 나타나는 기체와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과 접근이 이루어져, 외로움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기능하는 과정(process)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위와 같은 학문적 연구의 수행 외에도 이를 바탕으로 외로움에 대한 예방적·치료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은 잘못된 신념과 자기폐쇄적 사고관을 수정하는 인지치료 (Brage et al., 1993)와 같은 보다 실재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부모와 교육자, 그리고 상담자들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연(1993). 어머니 관련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37-50.
- 김주연(1997).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용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3(1), 112-123.
- 손화희,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1(1), 58-71.
- 시빌 아이젠크, 이현수(1985). 아이젠크의 성격 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과 영국-. *한국심리학회지*, 5(1), 51-66.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아동학회지*, 18(1), 39-52.
-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Circumplex 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문행(1994).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귀연, 최보가(1995).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7.
-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9.
- 주소영(1995). 고교생이 지각한 父-자녀간 애정적 유대와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민희(1993).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성향간의 연구-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9-7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oom, B. L. (1985). A factor analyse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225-239.
- Blos, P. (1979).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Free Press.
- Brage, D. Meredith, W., & Woodward, J. (1993). Correlates of loneliness among midwestern adolescents. *Adolescence*, 28(111), 685-694.
- Brennan, T. (1982). Loneliness at adolescence.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69-290). New York: Wiley.
- Cooper, J. E., Holman, J., & Braithwaite, V. A. (1983). Self-esteem and family cohesion:The child's perspective an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53-159.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Freeman.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05-715.
- Farrell, M. P. & Barnes, G. M.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f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Filsinger, E. E. & Lamke, L. K. (1983). The lineage transmission of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75-80.
- Fromm-Reichmann, F. (1959). Loneliness. *Psychiatry*, 22, 1-15.
- Garbarino, J., Sebes, J., & Schellenbach, C. (1984).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5, 174-183.
- Gauze, C., Bukowski, W. M., Aquan-Assee, J., & Sippola, L. K. (1996). Interaction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friendship and associations with self-perceived well-being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7, 2201-2216.
- Gecas, V. & Schwalbe, M.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 37-46.
- Gecas, V. & Seff, M. A. (1990). Families and adolescents: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41-958.
- Gi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역(1994). 서울:철학과 현실사.
- Goldenberg, I. & Goldenberg, H. (1980). Family therapy, 가족치료. 김혁표, 제석봉, 김정택 공역 (1988).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Goswick, R. A. & Jones, W. H. (1981). Loneliness, self - concept, and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107, 237-240.
- Graybill, D. (1978). To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Psychology*, 100(1), 45-47.
- Grove, G. A. (1980). Parental behavior and self-esteem in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53, 87-97.
- Hojat, M. (1982a). Loneliness as a function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 *Journal of Psychology*, 112, 129-133.
- Hojat, M. (1982b). Loneliness as a function of selected personality variab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1), 137-141.
- Horowitz, L. M., French, R. de S., & Anderson, C. A. (1982). The prototype of a lonely person.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183-205). New York:Wiley.
- Inderbitzen-Pisaruk, H., Clark, M. L., & Sollano, C. H. (1992). Correlates of loneliness in mid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2), 151-167.
- Jones, W. H. (1981). Loneliness and social contac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295-296.
- Kahle, L., Kullka, R. A., & Klingel, D. M. (1980). Low adolescent self-esteem leads to multiple interpersonal problems: A test of social-adapt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96-502.
- Kawash, G. F., Kerr, E. N., & Clewes, J. L. (1985). Self-esteem in children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Psychology*, 119, 235-242.
- Large, T. (1989). Some aspects of loneliness in families. *Family Process*, 28, 25-35.
- Loucks, S. (1980). Loneliness, affect, and self-concept:Construct validity of the Bradley lonelines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2), 142-147.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Wiley.
- Margalit, M. (1994). *Loneliness amo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Theory, research, coping, and intervention*. New York:Springer-Verlag.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 Minuchin, S., Ros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Havard University Press.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 research, and therapy*(pp. 1-20). New York:Wiley-Interscience.
- Peplau, L. A., Miceli, M., & Morasch, B. (1982). Loneliness and self-evaluation.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135-151). New York:Wiley-Interscience.
- Robertson, J. F. & Simons, R. L. (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25-138.
- Rubenstein, C. M. & Shaver, P. (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06-223). New York:Wiley-Interscience.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L.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surement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3), 290-294.
- Smart, L. S., Chibucos, T. R., & Didier, L. A. (1990).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1(2), 208-227.
- Solano, C. H., Batten, P. G., & Parish, E. A. (1982). Lonelines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524-53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Norton.
- Watkins, D. & Astilla, E. (1980). Self-esteem and family relationships:A Filipino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10, 141-144.
- Weiss, R. S. (1973). *Loneliness: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MIT Press.
- Weiss, R. S. (1982). Issues in the study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71-80). New York:Wiley-Interscience.